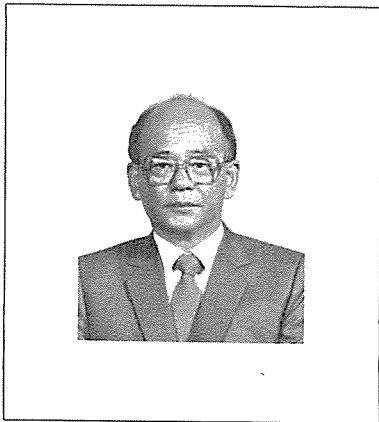


과학하는

마음



權 彛 赫
〈韓國敎員大總長〉

오늘날 과학분야에서 전세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대상의 하나가 미국의 SDL(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전략방위구상)라고 하겠다. 소위 「별들의 전쟁」이란것인데 이에 관하여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안다. 어쨌던 과학의 극치인것만은 사실이고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상이나 환상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것이니 대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은 견해와 물의가 생기기도 한다. 소련은 소련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서 양진영에서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것을 세인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에 시험관아기가 탄생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공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만큼 큰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의학이 종합적인 과학이란 점은 식자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이나 시험관아기의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험관아기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윤리적 문제, 법률적 문제등 많은것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과학의 승리라는 사실이다. 이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경의를 표할만 하다.

과학의 발달과 그 산물에 관하여는 아무리 논의해도 끝이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과학은 발달하고 있으며 값진작품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과학하는 마음」이다. 과학하는 마음은 과학자만의 과제가 아니다. 이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의 과제인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과학을 할 수는 없다. 특수분야의 과학이나 첨단을 가는 기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과학하는 마음」이란 어려운 과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마음이란 뜻이다. 모든 과

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과학을 이해하려는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쉬운 일부부터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은 어느모로 보거나 바람직한 일이다.

세인들은 지난번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가장 큰 재앙의 하나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텔레비전화면에 비친 참혹한 장면은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정도다.

그후 얼마 안되어서 일본 「도쿄」에서도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건물붕괴도 없었고 사망자도 없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10여명이 부상했다는 정도다. 일본하면 지진을 연상하리만큼 일본에서는 지진이 유명하다. 50여년전에 있었던 관동대지진같은 것이 항시 연상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우리 동포에 대한 학살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의 멕시코시티지진과 도쿄지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망·실종자의 수가 3만명에 이르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물이 붕괴되거나 소실된데 비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 단 한건의 건물붕괴도 없었다고 하니 가히 천양지 차라고 하니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 사이에 「과학하는 마음」이 얼마나 생활화되어 있느냐가 그 척도라고 믿는다.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비해서 평소에 내진건물을 세웠고 일단 유사시를 생각해서 일반국민에게 교육을 시킨것이다. 다시말해서 「과학하는 마음」을 심어온 것이다. 이에 비해서 「멕시코」에서는 별로 이러한 대비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것 같다. 일반국민의 「과학하는 마음」에 있어서 손색이 있었던것이 확실하다. 물론 지진에 대비한 건물의 설계나 건축은 선택된 과학자가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반국민이 「과학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 10월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광섬유케이블 연결공사를 하고자 맨홀에 들어갔던 배선공 4명이 어이 없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맨홀속의 메탄가스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맨홀에 들어갈때에는 지켜야할 안전수칙이 있다.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조금만이라도 「과학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

「과학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발생하는 사고는 부지기수이다. 간단한 예로는 자동차사고를 들 수 있다. 「과학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얼마쯤이라도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감인 호낙박사를 초청한 일이다. 1주일간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살펴보고 갔는데 이분도 「과학하는 마음」에 대해서 필자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호낙박사의 견해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과학공부를 덜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으로서 과학교육에 역점을 두는 것을 제일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상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일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 과학공부도 과학공부이지만 「과학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에 더 큰 뜻이 있다. 인문사회분야의 인사라고 해서 「과학하는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고방식같이 위험한것은 없다. 옛적 어느 노교수의 말씀이 생각난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기하가 필요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는데는 수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옛적에는 기하나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학이나 경제학 분야로 진출하는 예가 많았다.

「과학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요구된다. 「과학하는 마음」없이 이세상을 살아 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